

우리 화석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11)

2.3.4. 석유산업 구조

석유산업 중 화학석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년대와 70년대 중 꾸준히 커져 1981년에는 방직 부문에서는 60.6%, 제직 부문에서는 60.0%, 제직 부문에서는 70.7%로 천연석유산업을 크게 압도하였고 석유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2%로 천연석유를 약간 능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2년에는 방직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4%로, 제직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6%로 크게 떨어져 석유산업 전체에 대하여 화학석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2.8%로 작아졌다. <표 2.21>에서 보듯이 화학석유 산업 비중은 1984년에는 47.4%로 약간 회복되었다가 다시 작아지기 시작하여 1989년에는 38.1%로 떨어졌다. 그러나 석유산업의 기본을 이루는 방직, 제직 두 부문에 있어서는 1986년까지 화학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기 64.3%와 73.2%로 커졌고 다소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1989년에 있어서도 방직 산업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67.0%로 여전히 3분지 2수준을 넘고 있다.

화학석유 산업이 석유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1년의 50.2%에서 1989년의 38.1%로 급격히 작아지고 있는 것은 화학석유 산업이 천연석유 산업보다도 더 빨리 사양화되었다거나 화학석유가 천연석유에 의하여 대체되었거나 한 때문에 생긴 현상이 결코 아니다. 화학석유 산업은 <표 2.22>에서도 보듯이 1981~92년 간에도 급속한 성장을 계속하고 비단 의복 등 최종소비재 부문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산업용 중간재로서도 다양한 수요를 새로이 창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2.21>에서 보듯 석유산업에 대한 화학석유 산업 비중이 작아지고 있는 것은 첫째, 석유산업에서 방직업 및 제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1년의 76.7%에서 62.6%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적, 제직 두 부분 이외의 섬유산업 부문에서 천연섬유와 화학섬유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그 비중을 크게 하고 있는 방적 제직 이외 부문에서 화학섬유 관련 생산액을 밝혀낼 수 없다는 자료상 애로에 순전히 기인하는 것이다.

<표 2.21> 섬유산업 구조

(단위 : 백만 원, %)

구 분	1981		1984		1986		1989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섬유산업	5,601,540	100.0	6,977,502	100.0	9,286,332	100.0	12,235,308	100.0
화학산업	2,811,063	50.2	3,309,558	47.4	4,288,612	46.2	4,659,811	38.1
방적업	2,115,000	100.0	2,670,514	100.0	3,041,081	100.0	3,672,051	100.0
화학방적업	1,269,296	60.0	1,606,486	60.2	1,956,818	64.3	1,985,938	54.1
제직업	2,182,180	100.0	2,490,385	100.0	3,186,232	100.0	3,990,507	100.0
화학제직업	1,541,767	70.7	1,703,072	68.4	2,331,794	73.2	2,673,973	67.0

자료 :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호

정상적, 논리적 또 기술적으로 생각할 때 방적업과 제직업은 섬유산업 생산활동의 기초단계 활동이므로 1989년 현재 방적 제직 부문에서의 화학섬유 산업 생산액이 46,598억 원으로 방적업 및 제직업 생산총액 76,626억 원의 60.8%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화학섬유가 섬유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여주는 것이다.

한편 시설능력(일산)을 기준으로 화학섬유 산업구조를 보면 <표 2.23>에서도 본 바와 같이 1970년대를 통하여 폴리에스테르섬유 비중은 지속적으로

또 급격히 상승하고 다른 화학섬유 비중은 모두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추세는 1981~92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즉 이 기간을 통하여 화학섬유 생산능력은 일산 1376.0톤에서 4182.0톤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폴리프로필렌섬유와 비스코스섬유는 상대적으로는 물론 절대적으로도 감소하였다. 나일론섬유와 아세테이트섬유는 각기 264.3톤에서 688.0톤으로 2.6배, 15.5톤에서 38.0톤으로 2.5배 가량 시설능력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기준한 그 비중은 16.4%와 0.9%로 작아지고 있다. 아크릴섬유는 시설능력을 345.5톤에서 539.0톤으로 1.6배 확대한데 그친 까닭에 그 비중은 1968년에는 41.0%이던 것이 1992년에는 12.9%로 크게 작아졌다. 다만 폴리에스테르섬유만 시설능력을 618.0톤으로 4.6배 이상 증가시켰고 그 비중도 1968년에는 6.4%에 불과하던 것이 1981년에는 44.9%로 다시 1992년에는 69.0%로 커졌다.

<표 2.22> 화학섬유 산업구조

구 분	1981.6		1985.6		1989.6		1992.6	
	톤	%	톤	%	톤	%	톤	%
아크릴섬유	345.5	25.1	459.0	20.7	539.0	16.2	539.0	12.9
나일론섬유	264.3	19.2	418.5	18.9	497.0	14.9	688.0	16.4
폴리에스테르섬유	618.0	44.9	1,196.6	54.0	2,237.0	67.0	2,884.0	69.0
폴리프로필렌섬유	23.5	1.7	9.5	0.4	-	-	-	-
비스코스섬유	109.2	8.0	109.2	5.0	33.0	1.0	33.0	0.8
아세테이트섬유	15.5	1.1	22.5	1.0	33.0	1.0	38.0	0.9
합계	1,376.0	100.0	2,215.3	100.0	3,339.0	100.0	4,182.0	100.0

(주): 시설능력기준, 일산.

자료 : 한국화섬협회, 화섬편람 1993.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면 1991년 현재 화학섬유 생산량은 1,382,100톤이었는데 그중 아크릴섬유가 182,832톤으로 13.2%, 나일론섬유가 220,186톤으로 15.9%, 폴리에스테르섬유가 961,109톤으로 69.6%, 비스코스섬유가 5,338톤으로 0.4% 이었고 아세테이트섬유는 12,635톤으로 0.9%를 차지하고 있었다.